



## 청년에 희망, 국민에 행복 주는 과학기술 시대 열자

글 임동욱 객원기자 im.dong.uk@gmail.com

“청년에 희망을! 국민에게 행복을!” 지난 12월 13일 오전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 1천여 과학기술인들이 모여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의 출범식을 갖고 과학기술계의 정치적, 사회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범과학기술계 연합단체로 탄생한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이하 대과연)’은 올해의 총선과 대선에 앞서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의 입법활동을 격려해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내보였다.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그동안 국가정책 수립에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17개 단체 모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출범

대과연에는 국내 17개 과학기술단체 130만여 명의 회원들이 뜻을 함께했다. 참여단체로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한

국엔지니어클럽, 한국기술사회, 대한변리사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연합회, 과우회,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이하 과실련),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대한민국명장회,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대덕클럽, 한국공학기술단체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이다. 각 단체장들은 개회선언에 이어 대표기를 앞세우고 무대에 올라 과학기술계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직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역대 장관과 원로 등 과학기술계 주요 인사들이 자리해 과학기술 공동체의 결속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상대 과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제는 국정운영과 의정활동을 통해 과학기술 친화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과학기술 혁신이 고용 확대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도록 해 행복한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려나가자”고

역설했다.

같은 시간에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4개 지역에서도 출범식을 진행해 결의를 나눴다. 부산대학교, 대전 충남대학교, 대구 테크노파크, 광주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등에 마련된 행사장에는 200여 명의 지역 과학기술인들이 자리해 실시간 영상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 “과학기술인들이 국정운영 적극적으로 참여”

주제발표 순서에는 김태유 서울대 교수와 민경찬 과실련 상임대표가 나서서 대과연이 탄생하게 된 의미를 설명했다. 우선 김태유 교수는 ‘국가발전의 기본원리’라는 제목으로 과학기술의 업적을 조명하고 앞으로의 역할을 제시했다. 그는 산업자본이 인류의 번영과 풍요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그러나 현재는 산업자본이 99퍼센트를 위한 기술혁신에 투입되지 않고 1퍼센트만을 위한 금융자본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적인 가치를 창출해온 과학기술의 업적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경제위기가 잦아지고 빈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해결책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창의성과 기술혁신을 강조했다. 기술혁신과 산업생산으로 성장을 이룬다면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적 복지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 중심의 지식기반사회를 건설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직장을, 소외계층에게는 복지를,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맘 흘려 일한 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돌려주는 사회를 과학기술로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민경찬 과실련 상임대표는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출범의 의미’라는 발표를 통해 과학기술인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것은 열정과 땀을 아끼지 않은 이공계 인재들 덕분”이라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선택해야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주요 정책에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는 바람에 최근 외신들로부터 ‘한국의 기적이 지나갔다’는 평가를 듣는다는 것이다.

민 대표는 “이제 과학기술은 정치, 경제, 국방 등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에너지 등 글로벌이슈의 해결에도 필수요소”라며 “과학기술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국정운영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으로 국가 연구력을 극대화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높여나가자”고 제안했다.

### ‘과학기술인 선언문’에 결의 답아

주제발표 이후에는 학생, 기능인, 엔지니어, 과학기술인 등 각계의 바람이 담긴 영상과 발표가 이어졌다. 이철용 한양대생은 “이공계 장학금을 확충하고 실험환경을 개선해 대규모 인재풀을 구성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연화 인하대생은 “이공계 커리큘럼을 사회와 연계해 꿈과 희망을 실현시킬 기회를 높여주자”고 제안했다. 서정석 법일정밀 대표는 “한국은 역대 기능올림픽에서 26번 출전해 17번이나 우승한 기술강국인데도 숙련자들에 대한 대우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영욱 블로그카테일 대표는 “대한민국 IT기술이 세계 최고수준에 오른 것은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용기를 내 벤처사업에 뛰어든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임현의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실과 먼 미래를 동시에 내다 볼 수 있는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행사의 대미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의 의지를 담은



▶▶ 신회섭 KIST 신경과학센터장(좌)과 이소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인 선언문’이 장식했다. 신회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경과학센터장과 이소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선창에 따라 1천여 명의 참가자 전원이 선언을 제창했다.

선언문에는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국가현안 해결과 국정운영에 적극 참여한다’, ‘과학적 합리성을 통해 정의로운 희망사회를 만든다’, ‘과학적 지식의 증진과 첨단기술 개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나눔과 실천을 통해 국민과 항상 함께 한다’는 내용의 5개항이 담겼다. **ST**

### 대한민국 과학기술인 선언문

과학기술은 인류번영과 국가발전의 중심 축(軸)이며, 국력의 상징이다. 또한 합리성과 가능성의 기반이며 민족적 저력의 원천이다.

우리는 일제의 침탈과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여직공의 손길과 근로자의 피땀으로 경제성장의 귀한 새싹을 틔웠다. 그 후 ‘기술입국’의 기치 하에서 과학과 공학으로 무장한 과학기술자들에 힘입어 이제 반도체, 핸드폰, 조선, 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대한민국은 국민 소득 2만달러(\$)의 예비 선진국으로, 또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지구촌의 동반 성장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다시 희망성쇠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극렬한 이념논쟁은 국민 간에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은 피땀 흘려 쌓아온 국부를 탕진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들은 과학기술을 기피하고 또 산업현장을 떠나고 있다. 청년은 실업으로 절망하고, 중산층은 빈곤으로 내몰리며,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재원은 고갈되고 있다.

오늘 대한민국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와 실험을 잠시 미루고 이곳에 모였다. 엔지니어와 기능 명장도 생산현장을

두고 여기 함께 하였다. 왜냐하면 청년의 이픔을, 국민의 고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기 때문이다. 공허한 이념 논쟁으로 대립과 분란을 초래하는 이들에게 국가의 장래와 민족의 운명을 모두 맡겨둘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구국의 심정으로 500만 과학기술인의 마음을 한데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인류문명과 국가의 흥망에 대한 이론과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국민의 행복과 겨레의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과학기술과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하여 고용 확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복지 증진 등 국가 현안과 미래를 위한 국정운영의 모든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셋째, 우리는 과학적 합리성을 통해 땀 흘린 만큼 보상 받는 정의로운 사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넷째, 우리는 과학적 지식의 증진과 첨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인류번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다섯째, 우리는 과학기술인으로서의 본분과 소임에 더욱 충실할 것이며, 나눔과 실천을 통해 국민과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2011년 12월 13일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